

## 북한 지도자의 통치정당화와 '어머니' 활용 전략의 변화

김훈아\*

북한 지도자들은 집권 당시 환경과 조건에 따라 통치정당화 전략이 달라졌다. 북한 지도자들이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활용하는 전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질문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생물학적 어머니와 일반인 어머니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치정당화의 원천을 '건국신화'와 '이데올로기', '개인적 특성', '절차', '성과', '국제적 참여' 등 6가지로 구분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어머니 강반석을 '조선의 어머니'로 우상화하며 건국신화와 개인적 특성에 의존했고, 일반 어머니들에게는 '혁명적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일은 김정숙을 '선군의 어머니'로 명명하고 선군사상의 확산을 위한 '선군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건국신화'와 '개인적 특성' 대신 '성과' 중심의 정당화 전략을 채택해 '인민생활 개선'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가정경제의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성과와 젊은 세대의 비사회적 행태를 통제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통치정당화 전략과 어머니 활용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한사회 변화에 있어 어머니들의 역할과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 지도자, 통치정당성, 북한 여성, 어머니 활용전략, 어머니대회

\*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1. 서론

## 1) 문제제기

북한의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권좌에 올랐다. 따라서 그들의 통치 정당화 전략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활용해 왔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질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의 지도자들<sup>1)</sup> 사이에 통치정당화 전략의 차이가 있었는가,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도자별로 통치정당화 전략이 달라졌다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각 지도자들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두 가지 개념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통치정당성의 원천을 건국신화, 지도자의 성품, 이념 및 체계, 제도화, 성과 및 업적, 국제적 관여 등 6가지로 분류하는 이론적 접근에 의거하여 북한의 지도자들이 어떤 원천에 집중하면서 ‘어머니’를 활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가족을 신격화하고 생물학적 어머니를 우상화하면서 김씨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그러한 현상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것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김정은의 통치정당화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정당화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

1) 이 연구에서는 주석, 위원장, 총비서와 같은 북한 지도자들의 직책 없이 이름만 표기하였다.

북한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북한”, “여성”, “북한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들을 범주화해 보면, 북한에서 국가와 여성의 관계와 여성정책에 집중한 연구, 북한의 여성 이미지와 ‘김정숙’에 대한 통시적 연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각 시기 별 여성의 지위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의 통치정당화라는 정치적 영역과 ‘어머니’를 연계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북한에서 가부장제는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신화화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관리자이면서 노동자의 역할까지 강요받는 북한 여성들이 오히려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비공식관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sup>2)</sup>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그리고 경제난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였으나, 다산(多産)의 미덕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인부양의 역할은 모든 시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sup>3)</sup> 김정은 시기 들어 여성들의 권리를 범

---

2)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통권 제21호 1집(2012).

3) 김어진,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1):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마르크스 21』, 제27호(2018);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2): 1980년대부터 김정은까지,” 『마르크스 21』, 제28호(2018).

적으로 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가부장적 구조와 가정 내 불평등을 제도화하였다. 김일성 시기부터 강조된 가두여성의 생산활동 독려와 여성들의 인구재생산 역할은 김정은 시기에 이어지고 있다.<sup>4)</sup>

북한에서 ‘어머니’를 논할 때, 김정일의 어머니이자 ‘북한의 3대 백두장군’<sup>5)</sup>으로 우상화된 김정숙을 빼놓을 수 없다. 195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잡지 『조선녀성』 기사 제목을 분석한 연구 결과, 김정일 집권기에 ‘김정숙’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북한 정권은 필요에 따라 김정숙의 표상을 활용하여 여성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김정숙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북한정권이 수립된 김일성 시기에 소련의 사회주의적 여성모델인 ‘어머니-노동자’의 공식이 북한에서는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라는 이중역할로 제도화되었다. 해방 후 북한당국은 여성들에게 생산

---

4)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서울:통일연구원, 2019).

5) “[클로즈업 북한] 북한 3대 백두장군, 김정숙 외,” KBS 뉴스, 2009년 12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013392>(검색일: 2024년 11월 20일).

6) 김석향·박민주,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실제로 2023년 11월 어머니날(11.16)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12.4)에서는 ‘김정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이 두 행사 관련하여 약 29편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김정숙’의 이름은 없었다. 정교진, “[노동신문 돋보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김정은의 난제 및 달레마,” SPN, 2023년 12월 10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66>(검색일: 2024년 11월 20일).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재생산영역에서는 자녀를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양육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강요함으로써 경제복구건설 과정에서 대두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산을 위해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혁명적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7) 가정생활 관리와 함께 인구를 재생산하는 어머니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바로 1961년 11월 16일 <전국어머니대회>였다.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 사설에서 강조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은 국가에 대한 공헌자로서 보은과 충성,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적극 참여, 가정경제의 담당자였다.8) 이 시기에는 선군정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족의 범위는 혁명동지까지 확대되고 집단을 위한 여성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9)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여성들의 정치영역 진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약 20% 정도 진행되었으나,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도층의 확보 측면에서는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10) 김정은 집권

7)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노동자: 혁명적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 연구』, 제13권 1호(2005).

8) 문장순, “김정일 시대 여성인식: 1995년-2007년까지 『로동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5호(2007).

9) 김정일 시기 여성에 대한 연구는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다수 진행되었다.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색슈얼리티 연구(1955-2006):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2006); 정영권, “영화 <복무의 길>에 나타난 선군시대 북한의 여성과 가부장적 온정주의,”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10) 김충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2013). 이 연구는 2013년에 발표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료와 사례가 축적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보인다.

후 2016~2019년 기간에 『조선문학』에 나타난 여성상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 비해 여성들의 남성 중심의 일터로의 이동 경향,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부 분담, 전문직 여성의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sup>11)</sup> 북한의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에게 강조하는 정치사회적 역할이 달라졌지만, 김정은 시기에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 생산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 혁명의 후비대를 생산하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지향점이다. 북한에서 어머니대회를 통해 선전하는 모범적 어머니상은 당과 체제를 위해 다산(多産)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김정은은 지도자인 자신을 북한이라는 대가정의 어머니와 일치시키면서 김정은이 곧 ‘어머니’고, ‘어머니당’임을 연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sup>12)</sup>

한편, 장마당의 발전과 함께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으나,<sup>13)</sup> 북한의 정치영역과 ‘여성’ 또는 ‘어머니’를 연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지점에 이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김정은 시기 어머니대회의 적극적 개최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치사회변동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11) 고자연,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연구: 『조선문학』(2016-2019)수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2021).

12) 이상숙, “김정은 시대 북한시(詩)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 『조선문학』(2012-2019)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55집(2021).

13) 안인혜,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2001);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4); 박영자,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변화,” 『내일을 여는 역사』, 제75호(2019).

## 2. 이론적 배경

독재정권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세 가지 요소로서 정당성(legitimation)과 억압(repression), 회유(co-optation)가 제시된 바 있다.<sup>14)</sup> 이 연구에서는 ‘정당성’을 ‘지지를 얻는 과정(the process of gaining support)’이라고 개념화하였다.<sup>15)</sup> 북한은 전 세계 독재정권 중에서도 3대 세습을 실현하고 현재도 김씨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 안정성과 관련하여 ‘정당성’ 요인을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에스트와 그라우포겔(Soest & Grauvogel)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어떻게 그들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sup>16)</sup>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10년 기간 98개 국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의 비민주국가들의 통치정당화 전략과 내부역학을 검토한다. 강압적인 독재체제라 할지라도, 억압에만 의존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주민들의 지지가 체제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당성의 원천은 ‘건국신화(Foundational myth)’와 ‘이데올로기(Ideology)’, ‘지도자의 개인적

---

14)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Democratization*, Vol.20, No.1(2013), pp.13~38.

15) *Ibid.*, p.18.

16) Christian von Soest and Julia Grauvogel, “Identity, procedures and performance: how authoritarian regimes legitimize their rule,” *Contemporary Politics*, Vol.23, N.3(2017), pp.287~305.

특성(Personalism), '절차(Procedures)', '성과(Performance)', '국제적 참여(International engagement)' 등 6가지이다. 여기서 건국신화와 이데올로기, 개인적 특성은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성의 원천이며, 성과는 산출(output)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절차'는 베버가 말하는 합리적·법적 권위와 연관된다.<sup>17)</sup> 첫 번째 원천인 '건국신화'는 집권엘리트나 현직 지도자가 국가건설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통 전쟁이나, 혁명, 해방운동과 같은 강력한 투쟁의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그러한 서사가 정당성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 원천 '이데올로기'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때로는 특정 사회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신념체계를 말한다. 특히 독립 이후 신생국가가 종종 민족주의에 크게 의존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정당성의 원천으로 개인적 성품과 자질이 제시되었는데, 권위주의 체제는 대중과 정치엘리트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매력을 내세우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연결되는데, 결국 개인의 '비범한 성격'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원천은 정체성에 기반한 것인 데 반해, 네 번째 정당성의 원천 '절차'는 선거와 같은 형식적인 과정이나 규칙에 의존한다. 다섯 번째 정당성의 원천은 '성과(performance)', 즉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체제의 정당성이다. 이것은 한 정권이 물질적 복지와 안전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하는 것이며, 실제 개선이 없

---

17) Christian von Soest and Julia Grauvogel, "Identity, procedures and performance – how authoritarian regimes legitimize their rule," pp.289~291.

는 상황에서도 정권이 '성과를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독재자들은 국내적 통치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참여를 활용하기도 한다. 권위주의 체제가 국내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역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6가지 정당성의 원천들은 단독으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동시에 여러 차원이 활용되면서, 서로가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sup>18)</sup> 폐쇄적인 권위주의 정권은 정체성 기반의 정당성 주장에 크게 의존한다. 그 사례로 북한이 제시되었는데, 반일과 반미, 반역적 남한 주민에 대한 감정을 정권의 기본 신화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는 이념을 적극 내세웠으며, 지도자 개인을 정권 정당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권위주의 정권은 성과기반 정당화 전략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과기반은 경제성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같은 기타 영역에서의 성과도 포함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정체성, 절차, 성과기반의 정당성 주장이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sup>19)</sup> 게르셴스키(Gerschewski)가 제시한 3개의 안정성 요소에서 정당성 외에 두 가지, 즉 '억압(repression)과 회유(co-optation)'의 전략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에스트와 그라우포겔이 제시한 6가지 요소를 세

---

18) *Ibid.*, pp.296~298.

19) *Ibid.*, pp.299~300.

〈표 1〉 통치정당화의 원천 재분류

원천	내용	통제가능성	평가
1	건국신화	낮음	건국의 신화 창조는 선대 지도자가 수립, 후대의 지도자가 새로이 창조하기 어려운 영역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성품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
2	이념	중간	기존의 이념 및 체계를 기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나 변화 가능
	절차(제도)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변화 가능
3	성과(업적)	높음	당대 지도자의 노력으로 성취(주장이) 가능
	국제적 참여		당면한 시기 국제적 환경에 따라 통제 가능

자료: Soest, C. and J. Grauvogel, "Identity, procedures and performance: how authoritarian regimes legitimize their rule"에서 제시한 6가지 원천을 필자가 재분류하여 작성했다.

가지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sup>20)</sup> 지도자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체제 내에서 본인의 의지로 만들어 내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도를 '통제가능성'으로 보고,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1〉의 설명 참조) '건국신화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은 당대 지도자가 본인 의지대로 만들어 내거나 변화시킬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제1영역>, '이념과 절차'는 (선대의 유혹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이념과 제도의 틀 내에서 제한적 변화만 가능하므로 <제2영역>, '업적 및 국제적 참여'는 당대 지도자의 의지를 통해 변화가능성이 가

20) 이 글은 북한의 통치 정당화와 '어머니'를 연계하는 초보적인 연구임을 감안하여, 기존 통치정당화 이론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접근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 높은 <제3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21)</sup> 이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는 물론 각 시기별로 북한이 발표한 발간물, 신문 등 원전을 기반으로 하였다.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 관련해서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매체에 발표된 자료와 기존의 문헌연구를 활용하고, 국제부녀절과 <전국어머니대회> 관련해서는 『로동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3. 김일성의 통치정당화와 ‘어머니’ 활용 전략

#### 1) 김일성과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

김일성은 본인의 항일무장투쟁 서사를 신화화함으로써 ‘건국신화’라는 정당성의 원천에 의존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 사령관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지도자의 성품’을,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치 ‘이념’ 주체사상을 내세워 그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본인의 부모를 이상화했으며, 부모 이상화는 다시 김일성 개인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지도자로서 타고난 성품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7년은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해이다. 경쟁세력을 제거하고 1인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

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에스트와 그라우포겔은 실제 개선이 없더라도 정권이 성과를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과(업적)’의 통치정당화 원천을 정의하였다.

은 스탈린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의 가족에 대한 혁명화·신화화 작업을 진행했다.<sup>22)</sup> 그에 따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향도자이자 영도자가 되었다.<sup>23)</sup>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는 ‘조선의 어머니’로서 명명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1967년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 중앙위원회는 <강반석 녀사를 따라배우자>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 따르면 강반석 여사는 혁명가였고 만주 여자들을 항일운동에 동원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sup>24)</sup> 이후 북한에서는 이 책의 100번읽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현황은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되었다.<sup>25)</sup> 김일성 가족 우상화의 주된 내용은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이 위대한 공산주의자이며 애국자였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훌륭한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났다는 서사는 자연스럽게 김일성이 북한을 이끌어 갈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가졌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즉, 북한의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지도자 김일성의 훌륭한 성품과 자질, 그리고 민족영웅 김

22)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5), 469쪽.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불굴의 반일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24)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강반석 녀사를 따라 배우자』(평양: 조선신보사, 1967).

25) “... (중략) ... 이리하여 매 학습반들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을 통달하는 사업과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자>>100번읽기운동을 혁명력사학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학습반의 특성에 맞게 필기, 해설, 질문을 배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 (이하 생략)”,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봉리 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지도에서 연구실감사들의 역할을 높이어,” 『로동신문』, 1971년 1월 7일, 2면.

일성의 통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었다. 강반석 여사는 한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조선의 어머니’가 되었고,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의 어머니’, ‘북조선 인민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머니의 이미지는 김일성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2) 김일성 시기 ‘혁명적 어머니’

1961년 11월 16일은 김일성이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제하의 연설을 행한 날이다.<sup>26)</sup>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어머니들에게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 가정교육에서의 중요한 책임과, “어머니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당시 결혼 후 직업을 갖지 않고 살림을 하는 여성들을 “일 안하고 집에서 노는 녀성들”이라 칭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를 위한 여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여맹사업이 문맹퇴치 사업과 봉건사상 제거였다면, 당시의 중요한 과제는 더 많은 여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발동”시키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모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개조사업을 전개하고 어머니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사상교육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였다.

1961년 <전국어머니대회> 연설에서 나타난 ‘모범적 여성상’에 대

---

26)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을 더 훌륭히 양육하자,” 『로동신문』, 1961년 11월 17일, 1면.

한 강조는 김일성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 시기 어머니들을 동원하는 북한의 전략은 “혁신적 노동자, 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27)</sup>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전후 경제 복구 건설과정에서 시급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 확보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었다. 어머니들의 ‘혁명적 노동자화’를 위해 북한은 결혼한 여성 노동자의 생산현장 이탈이 없도록 단속하고,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혁명적 어머니’ 역할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1961년 최초의 <전국어머니대회>는 북한 정권의 체제 결속을 위한 사상사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자 확보라는 시대적 압력 속에서 개최된 것이다. 1961년에 제시된 북한 어머니들의 역할은 그 이후로도 지속 강조되었다.<sup>28)</sup> 북한의 어머니들에게 가정 내 사상교육의 일차적 담당자 역할을 부과하는 것은 ‘이념’이라는 정당성의 원천에 집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 확산에 어머니들이 적극적 행위자가 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집에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는 어머니들이 공장 및 농촌으로 나가 일할 것을 강조한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 도출을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본인의 통치정당화 과정에

---

27)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노동자-혁명적어머니’로의 재구성”.

28)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연설을 기념하기 위해 10주년, 30주년 계기에 관련 사실을 노동신문에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발표 열둑을 맞으며 자녀교양과 녀성혁명화에서 강력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문헌,” 『로동신문』, 1971년 11월 16일, 2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발표 30돛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91년 11월 15일, 2면; 20주기 1981년 11월 16일에는 관련 기사 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보도”라는 기사가 1면에 게재되었다. 『로동신문』, 1981년 11월 16일, 1면.

서 ‘이념’의 강화와 ‘성과’ 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혁명적 어머니’와 ‘혁신적 노동자’가 될 것을 강요하였다.

#### 4. 김정일의 통치정당화와 ‘어머니’ 활용전략

##### 1) 김정일과 ‘선군의 어머니’ 김정숙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건국신화’의 통치 정당성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된 혁명적 가문 태생, 즉 ‘선천성’에 대한 강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대를 이어 연장되었다. 따라서 혁명적인 조부모의 배경 위에 항일유격대 지도자 김일성과 항일 여전사 김정숙을 부모로 둔 김정일은 선천적으로 가장 합당한 수령감이 되었다.<sup>29)</sup> 또한 혈연을 기반으로 하여 독재자 지위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김정일은 자신이 ‘백두혈통’ 적자라는 것을 내세워야 했다. 이 지점에서 북한은 ‘백두혈통’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 ‘김정숙’을 활용했다.<sup>30)</sup> ‘수령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갖는 통치의 정당성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김정숙을 항일 여전사로 우상화하면서 선대의 ‘건국신화’와 부모에게서

29) 이종식, 『현대북한의 이해』, 469~470쪽.

30) 김석향·박민주,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157쪽.

물려받은 ‘훌륭한 성품’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였다.

김정일이 본인의 권력승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숙은 ‘선군의 어머니’로 포장되었다. 강반석에 부여된 ‘조선의 어머니’가 아니라 ‘선군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김정숙 앞에 내세운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평가한다. 우선, 김정숙이 김일성을 곁에서 보조하며 유격대 활동을 한 것은 김정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서사로 작용한다. 김정숙이 유격대 활동에서 김일성에게 보인 ‘충성과 헌신’이 강조되면서, ‘김정숙은 북한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총대인물이고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자애로운 모성상’으로 상징되었다.<sup>31)</sup> 당시 북한 여맹에서 묘사한 김정숙은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충직한 일꾼’이며,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투사적 면모’를 가진 그 시대의 모범적 여성이었다.<sup>32)</sup> 김일성에 대한 김정숙의 충성심을 따라 배우자는 메시지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강요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1998년 <전국어머니대회>를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sup>33)</sup> 따라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행동으로 실천한 김정숙의 아들 김정일은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뒤를 이을 최적의 지도자가 된다. ‘선군의 어머니’ 명명의

---

31)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파주: 창비, 2013), 139쪽.

32)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 『조선녀성』, 1980년 12월, 11~12쪽.

33) “우리 여성들과 어머니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셨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적극 따라배워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한몫숨 거꺼이 바칠 줄 아는 참된 충신이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제2차 전국어머니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1998년 9월 28일, 1면.

두 번째 요인은 통치이념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통치 정당화 과정에서 혁명전사 ‘어머니’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김정숙은 가장 모범적인 빨치산 전사이면서, 김일성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이자 보호자였다. 김정숙은 선군시대에 가장 빛나는 고결한 인물의 상징이므로 선군의 정치적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존경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sup>34)</sup> 이로써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은 통치정당성의 제1영역인 ‘건국신화와 지도자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정당성의 두 번째 원천 ‘이념’ 차원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역할을 했다.

## 2) 김정일 시기 ‘선군가정의 어머니’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에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함으로써 통치 정당화 과정에서 ‘이념’에 의존할 수 있었다.<sup>35)</sup> 김정일이 집권한 1990년대 중반은 극심한 경제난과 기아로 많은 주민이 고통받던 시기였다. 일부 개방조치와 속도전 등 시도가 실패하면서 김정일은 다시 한번 ‘물질’이 아닌 ‘사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sup>36)</sup> 북한은 당시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밝혔

34)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168쪽.

35) “1980년대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였다. 김정일은 1982년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간하여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주체사상”(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36) 강해석,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개의 민족론: ‘통일론’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1호(2019), 141쪽.

으며,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위대성’과 통치의 정당성 선전에 적극 활용하였다.<sup>37)</sup>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12일 자 『로동신문』 정론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8)</sup> 1998년 9월 20일 자 조선중앙방송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998년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완성한 뒤에는 여성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더 자주 언급되었다.<sup>39)</sup>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어머니들은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를 보다 강화하고 체제 내에 뿌리내리는 데 동원되었다. 이에 ‘어머니’들은 김일성 시대의 ‘혁명적 어머니’에서 다시 ‘선군가정의 어머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2003년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기념하는 사설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위대한 선군시대에 사는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번 온세상에 떨쳐야 한다”라는 것과 “가정혁명화를 다그쳐 모든 가정을 총대가정, 혁명적 군인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하였다.<sup>40)</sup> 여성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으며, 과거와의 차별성은 ‘혁명적 군인가정’이 ‘훌륭한 가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sup>41)</sup> 이 시기 북한의 어머니들은 ‘선군정치’를 가

---

37)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128쪽.

38) 위의 책, 126쪽.

39) 문장순, “김정일 시대 여성인식: 1995년-2007년까지 『로동신문』사설을 중심으로,” 248쪽.

40)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로동신문』, 1면, 2003년 3월 8일.

41) “모든 여성들은 여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

정과 사회에서 구현해 나가는 주체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일 시기 <전국어머니대회>는 1998년과 2005년에 두 차례 개최되었다. 1998년은 3년의 유혼통치를 끝내고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첫해이고, 극심한 경제난을 막 지나온 시기라는 점에서 김정일이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sup>42)</sup>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축하하는 『로동신문』 사설<sup>43)</sup>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력사적 시기에 열리는 대회”라고 그 시기적 의의를 평가했다. 2차 대회에서 김정일의 메시지는 어머니들의 ‘임무’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가 원만히 움직여 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해야”한다는 것과,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이 “사회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1961년 연설과 같이 어머니들에게 ‘어린이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역할과 농업과 경공업을 비

---

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 (중략) ... 자기 가정을 혁명적 군인가정과 같은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 (이하 생략)”, “여성들은 선군 혁명충진군을 떠미는 힘있는 역량이다.” 『로동신문』, 2006년 7월 30일, 1면.

42) 이 시기 어머니대회 개최 관련하여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후대’를 보충하기 위해 다산(多産)을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정영, “[북한 언론 뒤집어 보기] 북,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는 이유’, RFA, 2012년 11월 14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inout-11142012110318.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inout-11142012110318.html)(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43)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면, 1998년 9월 28일.

롯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신적 노동자’가 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제 3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린 2005년은 노동당 창건 60돌, 해방 60돌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서, 80년 만에 김정일이 가장 많은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된 해이다.<sup>44)</sup> 3차대회를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sup>45)</sup>은 이 대회를 “선군의 기치 밑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선군’을 전면에 내세웠다. 3차 대회를 기념한 『로동신문』 사설의 특이점은 북한 여성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혁명적 동지애가 선군시대에 이르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었다는 평가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앞서 2차대회에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김정일이 어머니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한 것에 비하면, 3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어머니들의 충성심과 역할에 대한 평가를 앞세웠다. 경제난이 극심했던 1998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2005년도 북한의 상황이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메시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론 이 사설 후반부에서 “장군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어머니들의 임무를 강조한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2차 대회와 비교하여 3차 대회에서는 여성들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체득하고 헌신적으로 받드는 ‘선군정치의 영렬한 신봉자, 견결한

---

44) 2004년도 같은 기간 84차례 대비 2005년에는 119차례의 공개활동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 2005년 공개활동 119차례 … 역대 최다,” 『한겨레』, 2005년 12월 23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247.html>(검색일: 2024년 10월 30일).

45)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면, 2005년 11월 22일.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하고, “선군시대 여성들의 혁명적 본분을 자각하고 자기 가정을 총대가정, 혁명적 군인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는 ‘선군시대 어머니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종합하면, 지도자 김정일은 시기적으로 중요했던 2005년에 전국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 ‘선군가정의 어머니’가 될 것과, ‘선군시대 혁명적 군인가정’을 앞장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 이념의 확대와 전파를 통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을 활용했다.

## 5. 김정은의 통치정당화와 ‘어머니’ 활용전략

### 1) 김정은 시기 ‘어머니의 부재’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통치정당화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김정일은 자신의 생모인 김정숙을 ‘선군의 어머니’로 이상화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했다. 반면,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에 대한 이상화는 2000년대 초 일시적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 북한 인민군은 ‘존경하는 어머님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존경하는 어머님’을 추앙하는 노래들이 방송을 타고 확산되었다. 그 ‘어머님’이 고용희라는 말은 없었지만, 간부들은 행간을 통해 그것이 고용희를 찬양하는 글과 노래임을 짐작했다고 한다.<sup>46)</sup>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님’이라는 제목의 85

분짜리 기록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김일성 사망 이후 추모 기간에 고용희가 북한 정권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 사진과 영상을 담고 있으며, 1990년대 김정일과 함께 현지지도에 동행한 고용희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기록영화를 제작한 목적은 고용희가 강반석과 김정숙을 따라 ‘위대한 어머니’의 계보를 잇게 하려는 것으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김정은이 백두혈통을 계승하는 위대한 영도자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이상화 작업은 곧 중단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은은 어머니 찬양 캠페인을 바로 중단시켰다.<sup>48)</sup> 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3년 초부터 인민군의 대열 합창 시 고영희를 상징하는 ‘평양어머니’ 노래를 불렀는데, 상부에서 강조되지 않다 보니 2006년 말부터 서서히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채일교포 출신 ‘무용수’ 출신인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이상화 때문에 북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sup>49)</sup>

46) 애나 파이필드(Anna Fifield), 『마지막 계승자』, 이기동 옮김(서울: 프리뷰, 2019), 89~90쪽.

47) 위의 책, 100~101쪽.

48) 이휘성, “북한 어제와 오늘 잊혀진 영부인 II: ‘존경하는 어머님’ 고용희,” 『DailyNK』, 2019년 11월 5일,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6%B4%EC%A0%9C%EC%99%80-%EC%98%A4%EB%8A%98-%EC%9E%8A%ED%98%80%EC%A7%84-%EC%98%81%EB%B6%80%EC%9D%B8-ii-%EC%A1%B4%EA%B2%BD%ED%95%98%EB%8A%94-%EC%96%B4%EB%A8%B8/> (검색일: 2024년 11월 13일).

49) 이 기사에서는 김정은의 생모 이름을 ‘고영희’로 표기하고 있다. ‘고용희’로 정정하지 않고 언론의 표기 그대로 사용하였다. “김정은 생모 ‘채일교포’ 고영희 이상화로 골머리,” 『DailyNK』, 2011년 12월 23일,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7%94%9F%E6%AF%8D-%EC%9E>

김정은의 어머니 우상화 중단 이유는 어머니가 ‘재일교포’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로서 백두혈통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한 김정은은 재일교포 출신의 어머니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재일교포는 북한 내에서 소위 “짜뽀”로 불리며 가장 낮은 단계인 적대계급 잔여자로 구분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고용희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출신의 생모콤플렉스 때문이다.<sup>50)</sup> 생모 우상화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김정은에게는 ‘본인의 통치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부재한 것과 같다. 김정숙 우상화를 위한 매체로 활용된 『조선여성』 기사 제목에도 김정은의 어머니로서 고용희가 등장한 적이 없다.<sup>51)</sup> 김정일은 고용희의 존재를 대외에 밝히지 못하고 관저와 원산에 숨겨 놓았고, 며느리 고용희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일성은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고, 생모인 고용희는 그의 혈통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 이런 점에

---

%AC%EC%9D%BC%EA%B5%90%ED%8F%AC-%EA%B3%A0%EC%98%81%ED%9D%AC-%EC%9A%B0%EC%83%81%ED%99%94/(검색일: 2024년 11월 13일).

- 50) 오중석, “[오중석의 북한생각] 김정은의 생모 콤플렉스,” *RFA*, 2024년 6월 14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06142024091429.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06142024091429.html)(검색일: 2024년 11월 13일).
- 51) 김석향·박민주, “『조선여성』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142쪽.
- 52) 오중석, *RFA*, 2024년 6월 14일.

서 김정은은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건국신화’와 ‘지도자의 성품’에 의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 2) 김정은 시기 애민 지도자와 ‘어머니’

김정은은 집권 첫해 2012년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일도 2차, 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도의 기념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에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이 별도로 ‘어머니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북한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3년 개최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우리 국가와 혁명 앞에 나서는 현실적 문제들로 보나 이번 대회가 당대회나 당중앙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대회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리일환 당비서의 대회보고 도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머니들에게 충성과 헌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sup>53)</sup> 또한 “나 역시 당과 국가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한다든가,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나에게 쓰러져서는 안 될 의무감, 이룰 수 없는 무한대한 책임감을 안겨주곤 했다”라고 발언했다.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느끼는 책임감과 어려움을, 가정을

---

53) 허백운, “11년 만에 열린 어머니대회서 눈물까지 흘린 김정은… 김주에 후계 분위기 만드나,” 『서울신문』, 2023년 12월 4일,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3/12/04/20231204500195>(검색일: 2024년 10월 30일).

지키는 어머니들과 비교하면서 어머니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김정은 시기 시(詩)문학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사용했다. ‘아이’는 자연스레 아버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김정은을 북한이라는 ‘대가정의 어머니’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다.<sup>54)</sup>

그렇다면 왜 ‘어머니’인가? 김정은 시기 지도자의 통치정당화와 관련하여 ‘어머니’에 집중하는 현상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첫 번째는 ‘건국신화’나 ‘지도자의 성품’을 내세우기 어려운 김정은이 ‘성과’ 도출을 통해서 본인의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취임 직후에 동시에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sup>55)</sup> 2013년에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sup>56)</sup> 2017년 11월에는 화성포-15형 발사를 계기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으로써<sup>57)</sup> 핵무력의 목표는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달성하였다. 이로써 김정은은 ‘인민생활개선’이라는 실질

54) 이상숙, “김정은 시대 북한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 『조선문학』(2012-2019)를 중심으로,” 201~202쪽.

55) “김정은 인민에 부각 ‘허리띠’ 발언, 진정성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0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4160100014>(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56)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정책”(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57) “핵개발(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법령)), 핵실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지식사전, 2021』(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인민생활의 개선이라는 것은, 물론 북한 모든 인민이 체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경제의 담당자인 각 가정의 어머니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운 김정은은 인민들 중에서도 특히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장마당 경제의 주체로 부상한 ‘어머니’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한 약속과 다짐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김정은의 연설에서도 확연 가능하다. 김정은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빨감 문제, 대중교통 운수와 승강기, 난방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과, 지방도시에서도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sup>58)</sup> 김정은이 ‘세기적인 낙후성의 대명사로 되어있던 농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약속하는 것을 보면, 전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애민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보인다.

두 번째는 사회통제와 체제결속의 차원에서 어머니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에 더해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

---

58)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 『로동신문』, 2023년 12월 4일, 2면; 김동완, “[평양 밖 북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자인한 김정은: 세기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DailyNK』, 2023년 12월 13일, <https://www.dailynk.com/20231213-3/> (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와 건전한 도덕생활 기풍 확립,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교양을 잘하는 문제까지 모두 어머니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sup>59)</sup> 출산율의 증가와 자녀교양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에다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에 비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연설에서 특이점은 ‘비사회주의적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들’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젊은이들의 사상이완과 가정불화가 정권 차원에서 강조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사상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북한 정권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사회문화적 통제를 강화하였다.<sup>60)</sup> 북한 정권은 법률제정을 통한 공식적 사회통제에 더하여 어머니들에게 ‘가정 내에서의 통제강화와 사상결속의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이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 그런 현상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며 가정 내에서 어머니들의 문화적 통제의 역할을 촉구하였다.<sup>61)</sup> 이것은 북한 정권이 통치이념의 구현과 국정운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각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59)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사 김정은,” 『로동신문』, 2023년 12월 4일, 2면.

60) 오중석, “[오중석의 북한생각] 북한의 3대 악법,” *RFA*, 2023년 10월 27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10272023103841.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10272023103841.html)(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61) 김동완, 『DailyNK』, 2023년 12월 13일.

다.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건국신화’와 ‘지도자의 성품’에 의존할 수 없는 김정은은 ‘성과’를 통해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을 활용하고 있다.金正은 시대 들어 이러한 변화는, 북한사회에서 가정경제는 물론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과 사상통제까지 다양한 역할을 강제받고 있는 ‘어머니’들의 역할과 지지가 북한 지도자의 통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 6. 결론: 변화하는 북한사회, 변화하는 ‘어머니’ 활용전략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북한은 김씨일가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인 김일성<sup>62)</sup>은 북한의 ‘시조’인 만큼 본인의 항일무장투쟁의 서사를 영웅화하고 주체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건국신화와 지도자 개인의 특성’, ‘이념’에 많은 부분 의존하여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조선의 어머니’로 우상화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의 통치를 정당화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어머니들은 전후 경제복구시기에 가정에서는 공산주의자 양성을 책임지는 가정교양의 담당자, 생산현장에서는 혁신적 노동자가 될 것을 주문받았다. 일반 ‘어머니’들은 이 과정에서 ‘이념의 강화와 성과 도출’이라는 정당성의 원천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활용되었다. 1961년

---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김일성이 행한 연설 <자녀교양에서의 어머니들의 임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별도의 ‘어머니날’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유례없는 독재 권력 세습에 성공한 김정일 역시 아버지 김일성의 건국신화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김정숙을 우상화하면서 훌륭한 부모를 둔 타고난 지도자임을 내세워 통치 정당성 확보를 꾀하였다. 김정일은 자신이 집권한 1990년대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념으로 ‘선군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어머니들은 선군의 이념을 각 가정과 사회현장에서 실천하는 ‘선군가정의 어머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 북한은 소에스트와 그라우포겔의 연구에서 밝히듯이 폐쇄적 권위주의 정권이 건국신화와 지도자 개인, 이념이라는 정체성 기반의 정당성 기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 김정은에게 있어 할아버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기록은 너무 먼 옛날의 서사이며, 어머니의 출신성분 때문에 김정은은 어머니 우상화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정당성 원천의 두 번째 영역인 ‘이념과 절차’, 또는 세 번째 영역인 ‘성과와 국제적 관여’를 통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의 선언으로 안보분야의 성과는 선언적으로나마 달성하였고 이후 경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성과’의 강조는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 ‘인민대중제일주의’와도 연결된다. 특히, 김정은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과거 김일성 시기의 인민대중론과 차별되는 인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sup>63)</sup> 실제로 김정은 시기에는 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살림집 건설과 같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종합하면, 김정은 시기에 ‘어머니날’을 제정하고 어머니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머니’에게 집중하는 행태의 배경은 가정경제의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인민생활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권의 공식 통제에 더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어머니들에게 강요하기 위함이다. 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김정은은 어머니들에게 비사회적 행태에 대한 가정통제의 역할까지 요구하였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여 통치정당성 확보 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권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독재자의 당연한 선택이다. 앞으로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국가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비공식 관계와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장한 주체’로 평가받는<sup>64)</sup> 북한 여성과 어머니들의 향후 역할과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투고: 2025.01.22. / 수정: 2025.03.30. / 채택: 2025.04.03.

---

63) 강해석·안경모,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2012-2021),” 정영철 책임편집,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107쪽.

64)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372쪽.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불굴의 반일 혁명투자 김형직 선생』(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강반석 녀사를 따라 배우자』(평양: 조선신보사, 1967).

#### 2) 신문

『로동신문』, 1961년 11월 17일; 1971년 1월 7일; 1971년 11월 16일; 1981년 11월 16일; 1991년 11월 15일; 1998년 9월 28일; 2003년 3월 8일; 2005년 11월 22일; 2006년 7월 30일; 2023년 12월 4일.

#### 3) 기타 자료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 『조선녀성』, 1980년 12월.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혜석·안경모,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2012-2021),” 정영철 책임편집,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파주: 창비, 2013).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5).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서울: 통일연구원, 2019).

파이필드, 애나(Anna Fifield), 『마지막 계승자』, 이기동 옮김(서울: 프리뷰, 2019).

## 2) 논문

- 강혜석,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개의 민족론: ‘통일론’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1호(2019).
- 고자연,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연구: 『조선문학』(2016~2019) 수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회』, 제30호(2021).
- 김도형, “북한의 여성과 여성 혁명가에 관한 이미지 연구: 전 근대사 및 ‘김정숙’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9집(2020).
- 김석항·박민주, “『조선녀성』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 김어진,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1):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마르크스 21』, 제27호(2018).
- \_\_\_\_\_, “북한여성과 사회변혁(2): 1980년대부터 김정은까지,” 『마르크스 21』, 제28호(2018).
- 김충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2013).
- 문장순, “김정일 시대 여성인식: 1995년-2007년까지 『로동신문』사설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5호(2007).
-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통권 제21호 1집(2012).
-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노동자-혁명적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2005).
- \_\_\_\_\_,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1955-2006):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2006).
- 안인혜, “김정일체제의 경제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2001).
- 이상숙, “김정은 시대 북한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 『조선문학』(2012-2019)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55집(2021).
- 정영권, “영화 <복무의 길>에 나타난 선군시대 북한의 여성과 가부장적 온정주의,”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 3) 신문

김동완, “[평양 밖 북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자인한 김정은: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DailyNK』, 2023년 12월 13일(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김정은 생모 ‘재일교포’ 고영희 우상화로 골머리,” 『DailyNK』, 2011년 12월 23일.

“김정일 위원장, 2005년 공개활동 119차례…역대 최다,” 『한겨레』, 2005년 12월 23일.

이휘성, “[북한 어제와 오늘] 잊혀진 영부인 II: ‘존경하는 어머니’ 고용희,” 『DailyNK』, 2019년 11월 5일.

허백운, “11년 만에 열린 어머니대회서 눈물까지 흘린 김정은 … 김주애 후계 분위기 만드나,” 『서울신문』, 2023년 12월 4일(검색일: 2024년 10월 30일).

### 4) 기타 자료

“김정은 인민애 부각 ‘허리띠’ 발언, 진정성 있나,” 연합뉴스, 2012년 10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4160100014>(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오중석, “[오중석의 북한생각] 김정은의 생모 콤플렉스,” RFA, 2024년 6월 14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06142024091429.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06142024091429.html)(검색일: 2024년 11월 13일).

\_\_\_\_\_, “[오중석의 북한생각] 북한의 3대 약법,” RFA, 2023년 10월 27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10272023103841.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nkthought-10272023103841.html)(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정영, “[북한언론 뒤집어보기] 북,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는 이유,” RFA, 2012년 11월 14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inout-11142012110318.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inout-11142012110318.html)(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클로즈업 북한] 북한 3대 백두장군, 김정숙 外,” KBS 뉴스, 2009년 12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013392>(검색일: 2024년 11월 20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3. 국외 자료

#### 1) 논문

Gerschewski, Johannes,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Democratization*, Vol,20, No,1 (2013).

Soest, C. and J. Grauvogel, "Identity, procedures and performance: how authoritarian regimes legitimize their rule," *Contemporary Politics*, Vol,23, No,3(2017).

##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n Leadership and Changes in the Strategy of Utilizing “Mother”

Kim, Hoona (Yonsei University)

The legitimation strategies of North Korean leaders have changed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at the time of their rul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trategy of utilizing ‘mothers’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and strengthening their rule has evolved. Here, ‘mothers’ include both biological mothers and ordinary mothers. This research employ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tegorizes the sources of governance legitimacy into six aspects: foundational myths, ideology, personalism, procedures,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Kim Il-sung idolized his mother, Kang Pan-sok, as the ‘Mother of Joseon,’ relying on founding myths and personalism, while demanding that ordinary mothers become ‘revolutionary mothers’. Kim Jong-il named Kim Jong-suk the ‘Mother of Songun (Military-first)’ and emphasized the role of ‘Mothers of Songun Families’ to spread the Songun ideology. In contrast, Kim Jong-un adopted a performance-based approach,

prioritizing ‘improvement in people’s livelihood’ and ‘people-first politics’ as core governance principles. This shift highlights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achievements experienced by mothers, who also play a reinforced role in controlling the antisocial behaviors of younger generations. Th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factors faced by each leader have shaped their strategies for governance and the use of “motherhoo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and power of mothers in future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leader, legitimacy of rule, North Korean women, strategy of utilizing ‘mother’, national mothers’ conference